

중진공, 성심당 고속성장 숨은 조력자... 인재매칭 역할 '톡톡'

1956년 밀가루 두 포대로 출발
대전 향토빵집 작년 2629억 매출
매장·공장·배송 인력수요 확대

기업인력애로센터 채용지원 활용
생산·조리 등 직무별 구직자 연계
2022년부터 작년까지 72명채용 지원
우수 중소기업 적극발굴 맞춤형 지원 강화
기부금 24억 착한기업 가치 확산



성심당에서 직원들이 딸기시루를 만들고 있다.

밀가루 두 포대로 시작해 2600억원이 넘는 매출로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전국 빵집 1위를 기록한 성심당의 성장에는 '사람'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인재를 묵묵히 연결한 중소기업전문진흥공단 숨은 조력 역할이 컸다.

2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성심당은 1956년에 대전역 앞의 천막집으로 된 썬빵집에서 태동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창업주 임길순·한순덕 부부는 당시 대전 대흥동성당에서 원조 받은 밀가루 두 포대로 썬빵을 만들어 팔았다.

6·25 전쟁 직후 배고픈 이들의 배를 채우던 성심당은 최근 들어 빠르게 성장했다.

성심당을 운영하는 로쏘씨는 지난해 262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도 1938억원 매출과 비교하면 1년새 36%나

성장했다. 스테디셀러인 튀김소보로 등 뿐만 아니라 딸기시루를 비롯한 제품들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누린 결과다. 대표적인 '빵지순례' 장소인 성심당은 2021년만 해도 매출이 628억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급격한 성장에는 안정적 인력 확보가 절실했다. 제품 생산, 매장 운영, 배송, HACCP 공장 근무, 외식 조리 등 다양한 현장 직무에서 지속적인 인력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로쏘는 중진공의 기업인력애로센터를 적극 활용했다. 기업인력애로센터는 구인기업에 채용 상담, 공고 작성, 인재 추천 등을 지원하고, 구직자에게는 1대1 취업상담, 입사지원 컨설팅, 면접 준비,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공공 취업 지원 플랫폼이다.

중진공에 따르면 로쏘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해 총 72명의 채용을 지원받았다.

채용지원은 단순한 인재 추천에 그치지 않았다. 기업인력애로센터는 로쏘의 생산직, 매장관리, 배송, HACCP 공장 근무자, 외식 조리 등 다양한 직무 수요에 맞춰 구직자를 발굴하고, 직무 적합성·조직 적응력·근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천했다. 또한 로쏘의 자사 입사지원서 양식에 맞춘 이력서 컨설팅을 지원해 구직자의 강점이 기업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같은 맞춤형 지원은 실제 채용 성과로 이어졌다. 기업인력애로센터 추천 인력은 생산 현장과 매장, 외식 조리 등 주요 업무 현장에 배치돼 로쏘의 운영을



성심당에서 일하는 직원이 미소를 짓고 있다.

뒷받침하고 있다. 폭넓은 직무 영역에서 채용이 이뤄졌다는 점은 기업인력애로센터의 매칭지원이 기업의 성장 단계와 현장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진공 관계자는 "성심당의 사례는 지역 우수기업의 성장이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전국적인 브랜드 인지도와 매출 성장만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제품을 만들고, 고객을 만나고, 품질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유지하는 인재가 함께할 때 기업의 성장은 더욱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중진공 기업인력애로센터는 앞으로도 로쏘와 같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기업별 직무 수요에

맞춘 맞춤형 인재 매칭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해 인재 채용 지원을 받길 원하는 중소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중진공 일자리매칭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착한기업' 성심당의 지난해 기부금은 24억원에 달했다.

한국전쟁 시절 흥남부두 철수작전을 통해 남쪽으로 피난을 왔다 결국 대전에 터를 잡은 창업주 부부는 '우리 가족이 살아 돌아간다면, 남은 인생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빵을 만들었다. 이같은 부부의 정신은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라는 경영이념으로 이어졌다.

밀가루 두 포대의 기적이 대전의 문화가 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향토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부부의 정신을 이어받은 임경진 대표는 성심당 누리집에서 "우리에게 '빵'이란 생계 유지 수단이기도 하지만 지역 경제와 사랑의 공동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가치이며 '동력'이라면서 "빵으로도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성심당은 앞으로도 빵을 통해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노란우산, 잠자는 공제금 1562억 주인 찾기 나선다

소재 파악 위한 시행령 개정안 의결
통신사에 미청구자 전화번호 요청
문신사중앙회와 가입 확대 협약도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가 생겼지만 전화 등 연락이 안돼 미청구된 공제금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락 두절 상태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위험에 대비해 2007년 9월 도입된 제도로, 올해 3월 기준 가입자 187만8437명, 부금 규모 32조9460억원에

이르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청구되지 않은 공제금이 올해 3월 기준 2만3085건, 금액으로는 총 1562억원에 달하고 있다. 미청구자 상당수가 연락 두절 상태여서 공제금 청구 안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연락 두절 가입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지난해 12월 2일 개정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화번호 요청·제공 절차 및 방법 ▲전화번호 제공 사실 통지 내용 등 세부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중기부와 중기

중앙회는 미청구자가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5년간 공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된다. 중진공 박상용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가입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 가입 확대를 위해 (사)대한문신사중앙회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문신사중앙회 회원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양기관이 노란우산 제도 안내 및 홍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반영구 회장, 패션 타투 등 업종의 1만 9000여 회원사로 구성된 문신사중앙회는 문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제도권 인착을 위해 지난 2019년 설립됐다.

중기중앙회 이창호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이라는 든든한 안전망에 함께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에이스침대가 신세계백화점 서울 강남점에서 6월4일까지 '에이스 헤리츠' 단독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에이스침대
프리미엄 침대수요 공략
헤리츠 팝업 강남서 운영
내달 4일까지 최상위 매트리스 체험

에이스침대가 최상위 매트리스 브랜드 에이스 헤리츠 단독 팝업 행사를 신세계 백화점 서울 강남점에서 오는 6월 4일까지 약 2주간 진행한다. 26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에이스 헤리츠는 60년간 축적한 에이스침대의 침대과학 기술력과 최고급 소재를 결합해 완성한 하이엔드 매트리스 브랜드다. 침대 전문 마스터들의 수작업 공정을 거쳐 생산한다. 블랙, 다이하몬드 플러스,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플러스, 플래티넘 등 총 5개 모델로 구성된 소비자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차별화된 소재와 완성도 높은 마감에 앞세운 에이스 헤리츠는 올해 1~4월 누계 기준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28.1% 증가하는 등 실적 호조를 이어가며 프리미엄 매트리스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번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팝업 행사는 늘어나는 수요에 발맞춰 핵심 상권에서 브랜드 접점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했다. /김승호 기자

두산에너지빌리티, 가스터빈 장기 서비스 확대

남부발전 가스터빈 3기 대상 계약
주기적 공급 이어 4800억 부품조달

두산에너지빌리티가 한국남부발전의 신규 가스터빈 발전소 사업에서 주기적 공급에 이어 장기 부품조달계약까지 확보하며 국산 가스터빈 서비스 사업 확대에 나섰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한국남부발전이 추진하는 고양청룡열병합발전소와 하동복합발전소의 가스터빈 3기에 대한 장기 부품조달계약(LTPM)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계약 규모는 총 4800억원 수준이다. 이번 계약은 지난 2월 체결한 가스터빈 공급 계약과 연계된 사업이다.

고양청룡열병합발전소와 하동복합발전소는 모두 2029년 12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해당 가스터빈을 대상으로 고온부품 공급, 재생 정비, 소모성 자재 공급, 기술지원 용역을 수행한다. 재생정비는 가스터빈 주요 부품을 정기적으로 수리·정비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계약 기간은 상업운전 이후 주요 정비 주기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통상 10년 이상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발전소 운영 초기부터 부품 공급과 정비 범위를 확정해 계획정비 일정에 맞춘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원관희 기자 wkh@

한화파워, 캐나다 친환경 에너지 협력 강화

앨버타대와 공동 연구개발 MOU 체결
한화오션 잠수함 사업 산업협력 지원

한화파워가 캐나다 친환경 에너지 협력망을 넓히며 한화오션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지원에 힘을 보탠다. 잠수함 본계약 경쟁이 기술력뿐 아니라 현지 산업협력 조건까지 함께 평가받는 구도로 전개되면서 한화그룹이 에너지 분야 파트너십을 앞세워 캐나다 내 산업 기여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화파워는 지난 22일 (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대학교와 친환경 에너지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한화파워가 보유한 폐열회수발전 시스템, 터보팬발전기(TEG),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 연구 기반과 인재 풀을 갖춘 앨버타대는 기술 고도화와 현지 사업화 검토 과정에 참여한다.

이번 MOU는 한화오션이 추진 중인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과 연계한 산업기술협력(ITB)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됐다. 한화파워는 협력 과정에서 폐열회수발전 기술과 압력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TEG 기술의 북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